



어디다 세워놔도 싱긋이 웃을 수 있어야

(지난 호에 이어서)

이성계가 그렇게 흉악한 꿈을 꾸었는데도 무학 대사한테 가서 여쭙 보니깐 “야! 까마귀가 까옥까옥한 것은 네가 궁 안에 들어갈 꿈이고, 꽃이 다 진 것은 열매가 열릴 징조니라.” 허허하... 그 얼마나 꿈 해몽을 잘했습니까? 해몽이라는 그 자체는 한생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색경이 떨어져 깨져서 소리가 외랑창 나는 것은 국민들이 큰 소리로 추대하는 징조고, 허수아비가 문간에 대통령용 매달려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꿈이나 꿈이 아니라 생시니라. 생시가 꿈이요 꿈이 생시니 한생각 잘해서 마음을 큼직하게 내라.” 이랬던 얘깁니다. 마음이 옹졸하면 소견이고 마음이 넓으면 지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좋게 생각해서 내 앞에 사탕이 들어오게 할 줄 모르고 조그만 것 가지고도 오히려 고통이 들어오게 만든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불법이 어떤 것이냐 하면 불(佛)은 여러분의 생명이고, 교(敎)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시는 그 자체가 바로 교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불교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도 그랬죠. “가톨릭교라는 거, 불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 그것은 가계 상표와 같다. 당신네 가게만 가게고 딴 사람의 가게는 가게가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딴 스님네들은 거기서 설법하다가 내뿜기도 했는데 내뿜기길 각오하고, 뭐 각오하나마나 초 내뿜겠으면 쫓고 말겠으면 말아라 이거지 뭐가 그렇게 겁나니까! 아니,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죽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내뿜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환영을 하고 노비도 두둑하게 주고, 그냥 뭐 팔을 넣어서 찰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스님들이 실컷 먹고도 남았죠. 뭐.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이 어디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국한된 게 아닙니다. 포괄적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 생활이 그대로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닙니

까? 그리고 또 설계도가 나오더니 금방 집이 만들어졌습디다. 아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밥 먹겠다고 생각하니까 밥을 먹고, 먹으니까 똥이 나왔고, 이렇게 단계 단계, 그냥 생각대로 사시는 겁니다.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고요.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니가 몸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기 갈 생각을 하니가 그냥 몸이 저절로 일어나서 그냥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지 몸이 주인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로 주인인 것이고 몸은 바로 그 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문수 보현을 모시게 해 놔 습니다. 생각을 낸 것을 바로 문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법(法)’ 자입니다. 또 움직여야 하는 걸 바로 보현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문수 따로 있고 보현 따로 있고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

러분이 한생각을 내면 그냥 법입니다. 생각내기 이전은 부처고, 생각 했으면 바로 문수고, 움직여 렸다 하면 바로 그것이 보현입니다. 그러니 보현 문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생각을 잘 하면 부처요, 한생각을 잘못하면 중생이다 이 소립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개발이 많이 돼서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이 폭발해도 그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연구 해서 많은 발전들도 가져오고요. 그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물질들 이전이 있던 말입니다. 수소 폭탄을 만들어 놔다 할지라도 그 이전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마음대로 구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발전이 됐어도 사람 죽이게만 만들어 놔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몸뚱이를 끌고 가는데, 몸뚱이를 여러분의 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네 차라면 자기가 더러우면 닦고 고장나면 고치고 그러지, 그 래 누가 대신 와서 고쳐 주고 대신 닦아 줘야 됩니까? 지구가 그렇습니다. 지구가 우리들의 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더럽다고 누가 닦아 주고, 고장났다고 누가 고쳐 줘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거고 우리가 닦아야 될 거고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 겁니다. 지구에서 자원이 모자라면 광력이 나 전력, 자력, 통신력으로 모두 끌어들이야 할 거 아닙니까?

저이는 먹물웃을 입고 별이별 소리, 강풍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겠죠? 하하하... “저이는 중이면서도 왜 저렇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경전의 얘기는 하지 않고...” 이러겠죠. 그러나 어머머한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때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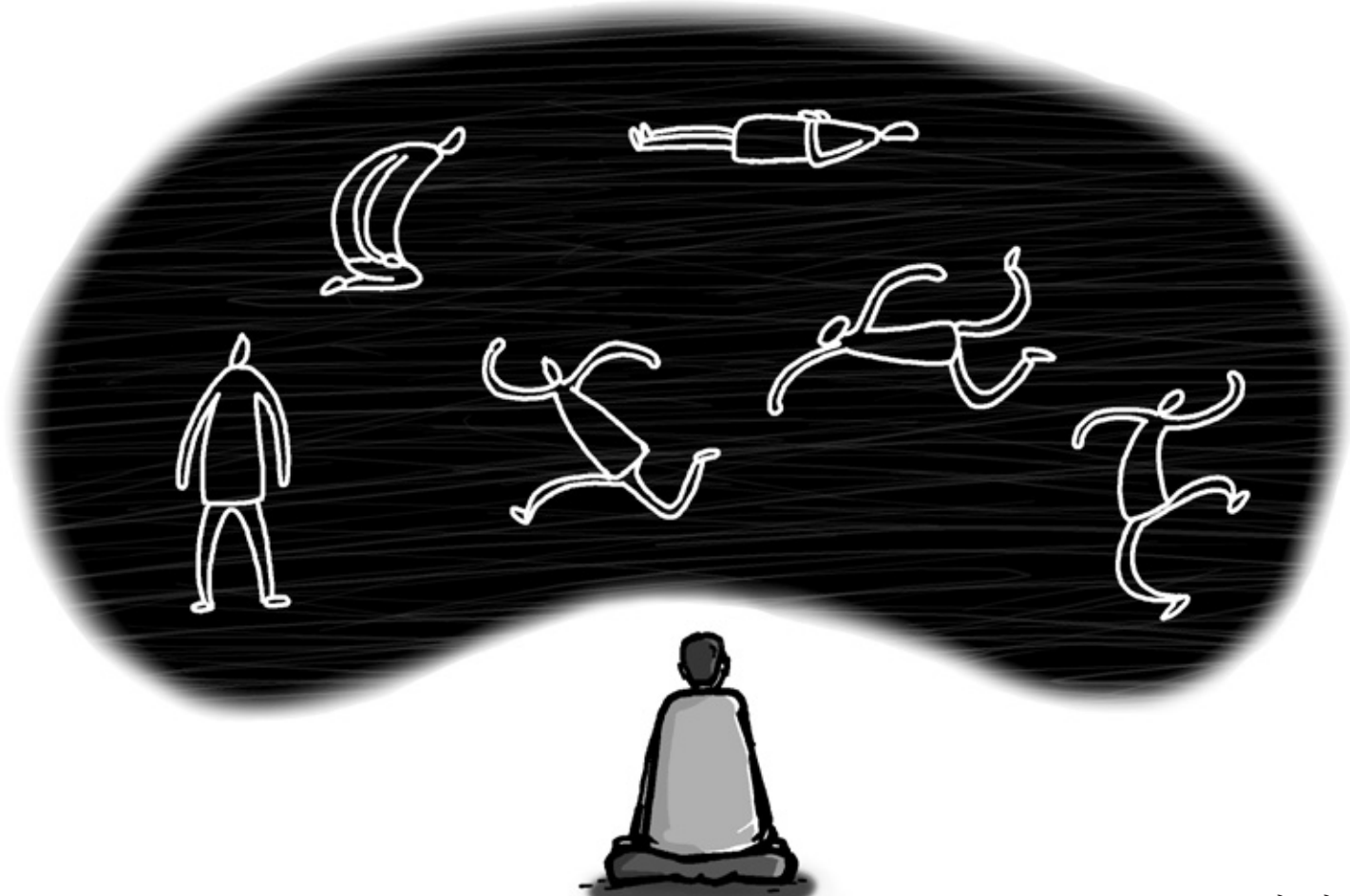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의 용어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다 있죠. 먼저 유(有)의 법을,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무(無)의 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한데 합쳐서 바로 중용의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세상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통틀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열반하시기 전에 진짜 부처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웃 웃 전에 이 진리를 탐구해서 다 감응이 되고 집착을 하는 차원이 된다면 12대 종손까지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부모의 목은 빛도 못 갔으셨고 지금 자식들에게 햇빛도 못 주고 계십니다. 몸뚱이나 쓰다듬고 돈이나 쥐서 학교나 다니게 하고 재산을 내주는 것이 햇빛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게 ‘진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은 하루아침에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조그만 어린애 적부터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사대 성인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전부 네 마음속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저 아빠 엄마가 벌여 다 주고 밥해 주고 그런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아프면 “애! 지금 아픈 것도 네 몸에서 아픈 거니까 네 주인공밖에 닳게 해 줄 수 없다고 네가 관해서 네가 나야라.” 이렇게 자꾸 가르친다면 그 어린애가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돼요. 지금 그렇게 체험해서 알아 가는 선원 학생들 중에 어떤 이는 학교에 들어가는데도 30명이 넘는 애들을 제치고 거기 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뭐든지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예요. 뭐든지 자기가 안다는 말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대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해요. 세상에, 이러는 걸 볼 때 내가 외려 고맙고 너무나 기쁘단 말입니다. 개가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기쁘니까?

또 한마디 해 드릴까요? 주삼주삼 주위 모아서 하는 소리 같지만 잘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부처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껴여 있는 겁니다

29면에서 계속

넙게서 해골까지, 뼈다귀 모인 자리에 가서 큰 절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보고서 "사생의 아버지인데 어째서 거기다 절을 하십니까?" 하나가 "저 뼈다귀 해골이 전자의 내 할머니인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내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내 형제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생물로 있었을 때는 그 미생물의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또 물고기로 있었을 때는 그 물고기의 어머니도 있었고 물고기의 아버지도 있었듯이, 수없이 진화되어 내려오면서 사람까지 될 동안 얼마나 부모가 많았고 얼마나 자식이 많았고 얼마나 형제가 많았겠는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더 보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제자들은 "미처 이러한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목을 놓고 울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미생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미생물들이 그렇게 운행을 해 주기 때문에 진화된 이 큰 몸통이, 이 육성은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잘나 생활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꼭 대무변한 이 법을 실험하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활 속에서 잘나잘나 그대로 자유스럽게 사시는 것이, 내 의견으로는 세세생생을 되찾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직껏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말한 사이가 없고, 말한 사이가 없지만 듣기는 했습니다. 귀신이 방귀는 끼었는데 그 방귀도 없애지고 귀신도 없애졌어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쪽으로 온 까닭은 뭐고 서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달마 대사가 양 무제에게 공덕이 없다고 하나가 약사발을 안겨서 죽여 버렸지요. 대사의 몸을 묘지에 갖다 묻었는데 죽어서도 가르치려고 글썽, 왕의 사신으로 외국에 갔던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달마 대사가 신발 한 짝을 주장자에다 껴 가지고 어깨에다 척 짊어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구! 이거 어딜 가십니까?" 하나가 "난 서쪽으로 가겠네." 하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양 무제더러 달마 대사가 서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약을 먹여 죽여서 묻었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가서 파 보니까 신발 한 짝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 신발 한 짝 껴 가지고 간 거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 무제는 무릎을 탁치고 깨달았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말

을 보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그랬답니다. "너 하나를 가르쳐서 국민을 다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러나 한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너 지금이라도 해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동쪽으로 온 까닭도 서쪽으로 간 까닭도, 우리가 지금 충충대를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에 충충대가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은 볼 일이 있다면 충충대를 올라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이 아파트의 2층이라면 거기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올라갔죠? 그랬는데 또 내려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제 바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고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무엇이나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봐도 아니 닿는 데가 없죠. 그 두 까닭이 한 까닭이죠. 여러분이 다 그道理를 아신다

땀들과 같습니다. 천지가 내 중심에 한데 껴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있어서 그게 돌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막 돌아갑니다. 어떠한 물건이 생기든지 거기다 넣어서 갈아 내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이겁니다. 이거를 터득해야 이거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그렇게 무조건 수박을 쪼개서 먹어 본다 이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말입니다. 전력 120볼트가 있으면 220볼트가 120볼트를 집어삼키듯 그렇게 뭐든지요. '부처다!' 하고 나타내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히, 내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끄는 것이로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 또 놔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놓는 거예요.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꿈이 좋은 나쁜 모든 것을 거기에 맡겨 놓으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잘살 것이라고 꼬리표를 해서 붙여 놔두었습니까? 못할 것이라고 꼬리

표되는 거 있으면 또 고치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 토론하면서 나가 봅시다.

질문자(여): 좋은 말씀,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은데요. 아까 수박을 비유해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기 개인만 생각할 때는 인연을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부모라든가 형제, 또 부부의 연을 생각하면 그거는 남과는 좀더 다른, 보다 큰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부라든가 부모의 인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이거 봐요. 벌써 수박이 됐으면 씨는 부모예요. 네? 그래서 벌써 부모가 돼 가지고선 몸에 수박이 딱 낫어요. 부모는 씨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익을 때까지 이끌어 가지고 가려면 그냥 내내 이끌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영원한

살던 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거기서 지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 속에, 지금 세포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전부 그러란 말입니다. 즉 그것들이 자기에게. 수없이 살아오던 과거의 업식들이 자기한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어느 거 하나 내 부모 안 됐던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내 자식 안 됐던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내 형제가 안 됐던 게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요. 3대 독자로 살다가 그냥 다음 대에 내려와서는 그 집에 가서 또 태어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이렇게 그냥 뒤집었다 앞었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게 꼭 배우들이 연기하는 영화 장면 같습니다. 앞었다 뒤집었다 재깘다 하고 말입니다. 모두 참,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예요. 뭐,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 깔깔 웃어요. 참, 나는 스님 역의 배우가 됐는데 여러분은 참 색색 가지로 많은 배우 역할을 잘하신다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구! 이놈의 세상, 지켜워서 살 수가 없어." 이러지만 지견으로 쓰신다면 아마 자재천궁(自在天宮)일 겁니다. 보는 것마다 우습고 보는 것마다 싱그럽고...; 그게 길지 않으니깐요. 금방 이렇게 살다가 금방 저렇게 살고, 금방 아프다가 금방 일어나고 금방 일어났다가 뭐가 잘못됐다고 방방방방 뛰고, 금방 방방 뛰었다가 금방 사랑하고 뭐 뭐 벌짓 다 해요. 금방 아내가 됐다가 금방 어머니가 됐다 금방 할머니가 됐다, 금방 친구가 됐다 형님이 됐다 동생이 됐다, 딸이 됐다가 며느리가 됐다... 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또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될 때 나라고 할까, 딸이 될 때 나라고 할까 며느리가 될 때 나라고 할까요. 그 어떤 거를 뭉 지어서 말할 수 없는 게 부처예요. 그래, 전부 부처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가짜로만 부처를 알지 마시고 진짜 부처를 진짜 아셔야 될 겁니다. 아, 근데 뭉 소리를 했는지 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광주에서의 법회는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난날에 했던 설법도 비디오로 나와 있으니 잘 참석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 위 법문은 1990년 8월 25일 국내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 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못사는 것도 한철 잘사는 것도 한철
높은 것도 한철 낮은 것도 한철입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다는 말을 듣지,
얕은 산이 없다면 어떻게 높은 산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도 높은 것도 평등하다는 겁니다.

면 인제는 어디다 세워 놔도 당당하고 어디다 세워 놔도 싱긋 웃으실 겁니다.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보면 보는 대로 놓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 자신이 없다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발견한다면, 지금 20년 30년이 되도록 수박을 놓고 '이거 뭐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박인데도 그 수박을 놓고 자기가 '이거 뭐고?' 하고는 10년도 보내고 20년도 보내요. '이거 뭐고?' 하고요. 지금 '뭐고?' 하고 있을 시대입니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 자체가 바로 참선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선지식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삼계에 내 몸과 뜻을 나타내지 않고 가는 것이 그대로 좌선이라. 내가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가는 것이 좌선이라." 이랬죠. 그것이 내 주인공한테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심봉입니다. 땀물 돌아가는 데도 심봉이 껴져야 땀물이 돌아가지요. 그럼 물건이 생기는 대로 거기다 놓고 갈아 내는 거죠.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표를 해서 붙여 놔두었습니까? 못사는 것도 한철 잘사는 것도 한철, 높은 것도 한철 낮은 것도 한철입니다.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다는 그런 말을 듣지, 얕은 산이 없으면 어떻게 높은 산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도 높은 것도 평등하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이 공부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맡겨 놓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 아까 잠시 전만 하더라도 과거이고 내일도 미래, 이따기도 미래입니다. 모든 건 다 거기다가 맡겨 놓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두 번 해 보고, 세 번 해 보고 이렇게 자꾸자꾸 해 보다 보면 그때는 능히 당당해질 수 있고 이전 죽음도 겁 안 난다고 할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죽음도 겁 안 난다는 거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겁 안 납니까? 그뎨 운전이 아주 능숙해져서 자기 몸통이 끌고 가는 거는, 차 끌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리와 똑같죠.

여러분!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잘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또, 맥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맥이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됐다 자식이 부모가 됐다, 연방 바뀌서 돌아가는 거예요. 연방. 그래서 수박과 씨는 둘이 아니다. 부(父)와 자(子)는 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거 말이 길어지는데요, 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정자와 난자, 즉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통이를 받았 습니다. 몸통이는 받았으나 여러분 영혼의 그의 식 자체가 거기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합이 합치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전자에 살던 그 인연들의 과거를 전체 짚어낸 채 자기가 그 몸통이를 하나 뽑는단 말입니다. 몸통이를 하나 뽑아서 의식 자체를 전부 짚어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몸통이를 많이 받아서 수십억 마리가 나오지만 한 몸을 받고는 그 나머지 몸통이들은 다 물로 가 버려요. 그리고 몸통이 하나 받아 가지고는 자기가 과거에 살던 인과를 다 짚어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인과라고 하는 것이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 자기

열기 차단 아이스 쿨 스카프

더워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카프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 냉매제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락피양을 한 스카프는 목 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폴리머가 적당히 팽창하면 골고루 퍼줍니다.
 3. 동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이마,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창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 소재 : 기능성 폴리에스터, 면
-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 폴리머
-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 무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A형)를 알려주십시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대불교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충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
是養養氣시귀양기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 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엄선된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향·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체력증진·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특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체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良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蔘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세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율 불차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남석화, 초롱목,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